

[2008 년 통행로 사용현황]

지흥안은 자신의 차고를 중심으로 마당 바깥쪽과 박찬구 밭의 경계 쪽으로 서서히 우회 통과 함. (사진 11 참조)

2000 년 지흥안은 토지 매입 후 주택을 짓고 박찬구에게 집 앞 마당 통행 허가를 구두(口頭)로 승낙 받아 통행하기 시작함. 마당에서는 농사 준비뿐만이 아니라 수확과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하고, 자녀의 차량도 주차를 하니 마당 바깥쪽으로 서행하기를 당부함. 전거주자는 농사일을 잘 알고 있고, 가족모임이 있을 때만 차를 이용해 결혼한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이에 동의함. 이사 초기의 전거주자 에게 차가 없어 마당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사는 자녀에게 차가 생기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서행으로 마당을 지나 다녔으나 서로 큰 불편함 없이 지냈음.

그 당시 집 앞 마당 통행의 사용 승낙은 소유주 박찬구가 필요한 서류 인감을 주었고, 지흥안이 직접 군청에 가서 임의로 경계선을 신고함.

그 후 지흥안의 마당과 박찬구의 밭 경계 부분에 경계 목(사진에서 5 번)을 심기 시작함.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니 나무를 심지 말고 묘목 제거를 여러 차례 당부 요청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함.

* 밭에 그늘이 지고 물이 고이는 등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 되었음.
(그림에서 번호 6 참조)

[사진11] 2000년도 통행로 상황



- 지흥안 차량 통행 현황 (2000년 4월 이후 678-4,6 매도후)

[2021 년 통행로 사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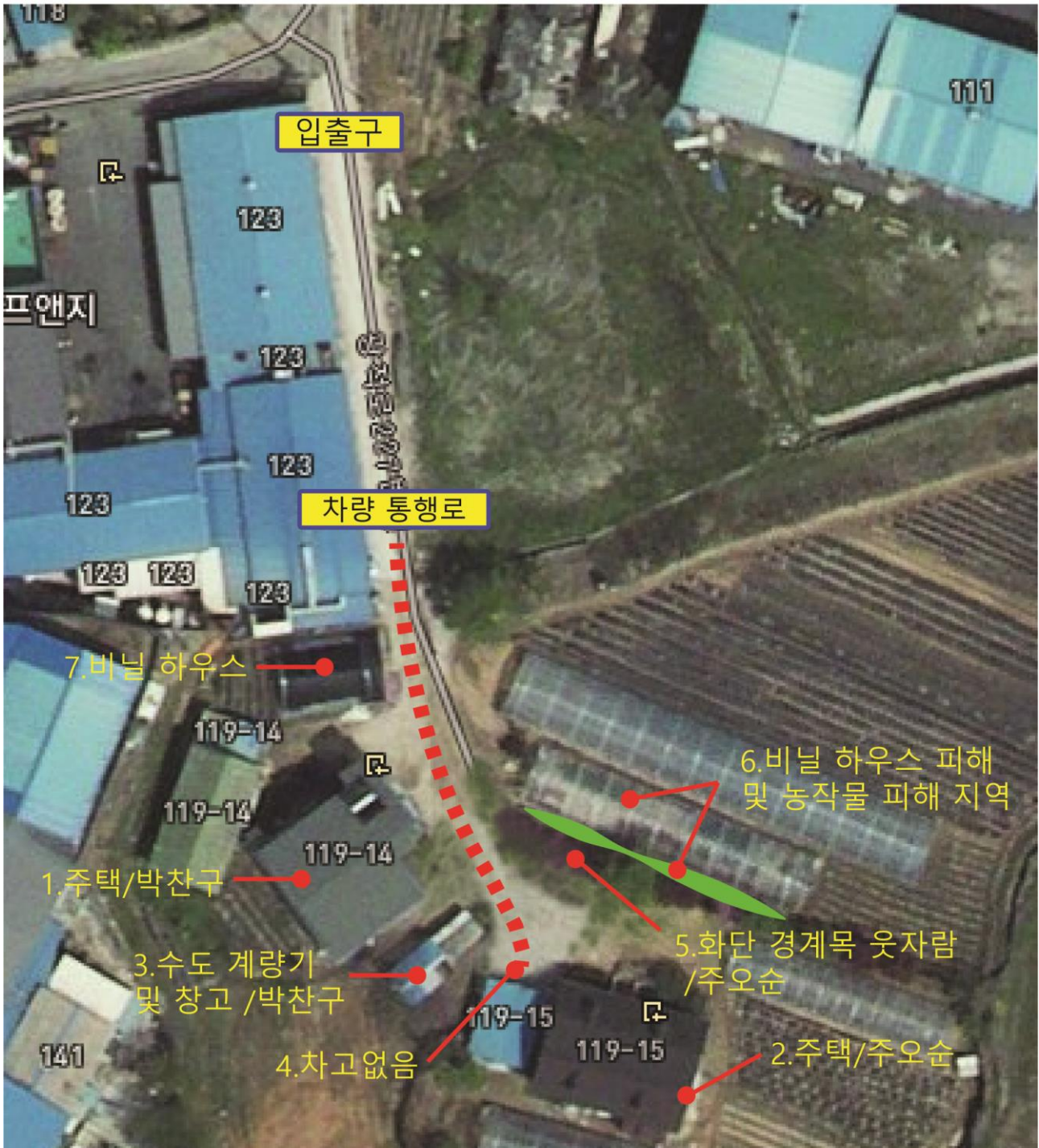
경계목의 가지가 자랐으나 전지 작업 없이 주오순은 마당 바깥이 아닌 박찬구의 마당 쪽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었음.

(사진 12 참조)

2021 년 7 월 이후 주오순이 매입한 토지의 경계목 가지가 많이 자란 상태였으므로 주오순이 옆집에 이사를 온 후 주오순의 차량 통행을 위해 경계목의 일부 제거를 요청하고 마당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서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함. 그러나 경계목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이용해 박찬구의 마당 안쪽으로 빠르게 지나다녔음. 이러한 주오순의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인적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농사일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옆집 경계 목의 (사진에서 5 번) 웃자람으로 농작물 피해는 더 많아지고, 차량 통행이 점점 박찬구의 마당 안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임.

[사진12] 2021년도 통행로상황



- 주오순 거주후 차량 통행 현황 (2021년 7월 이후 678-4,6 매입후)

[차량 통행 가능 진출입로]



* 철망 문은 항상 개방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철망 울타리 설치 이후에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계 목을 제거 한 이후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통행이 가능함.